

18~19세기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삶

홍학희*

<차례>

1. 서론
2. 성해응의 가계
3.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삶
 - 1) 교육과 지적 역량
 - 2) 혼인과 가족 관계
 - 3) 죽음과 삼종지의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여성 생활사를 재구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조선후기 문인 성해응(1760-1839)의 여성관 및 집안 여성들의 삶을 교육·혼인·죽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해응은 개인과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도(變道)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성도 평소에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문장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성해응 집안의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들들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성해응 집안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약 20세 전후로 조혼은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남귀여가제에서 친영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었던 듯, 증조부 대에 처가살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부 때는 증조모까지 모시고 처가살이를 하였다. 부친 성대중은 처가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으나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인지 처가나 외가, 친정 등 여성과 관련된 친인척과의 경제적·정서적 유대가 밀접하였다. 또한 성해응 집안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평생을 수절했지만 남편을 따라 종사(從死)한 여성은 하나도 없다. 성해응은 열녀에도 종류와 등급이 있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다고 하였는데, 남편 사후 슬퍼서 죽는 열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義)에 맞게 죽는 열부와 살아서 집안을 일으키는 열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다.

주제어 여성생활사, 성해응, 교육, 혼인, 죽음.

1. 서론

1990년대까지 조선시대 여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성리학적 중범 질서 하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 혹은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어떻게, 얼마나 억압받아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조선의 여성들이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꾸려나갔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논문 역시 조선시대 여성의 억압사를 벗어나 여성이 제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여성관 및 집안 여성들의 삶을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의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집안의 여성이라 함은 그의 집안에서 출생한 여성 및 혼인을 통하여 집안에 들어온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기록의 특성상 자료는 주로 전(傳), 행장, 제문, 묘지명, 애사(哀辭) 등 비지전장(碑誌傳狀) 류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전(傳)이나 행장, 제문, 묘지명, 애사(哀辭) 같은 글들은 대부분 일정한 투식을 가질 뿐 아니라 남성 사대부의 시각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정형화된 양상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성해응의 경우 역시 다른 집안의 여성이나, 집안 여성들 중에서도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들

에 대해 쓴 글들은 지극히 유교적인 정형성을 띤다. 양반집 부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윗사람, 아랫사람, 친척,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본인의 삶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여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 관계를 모두 무난하고 훌륭하게 꾸려간 교과서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변적 여성을 다룬 글들에서는 오히려 그 어떤 여성을 다룬 글에서보다 생생한 삶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해응의 서조모는 성미가 급하고 편협하였으며, 화려하고 사치스런 무인의 가풍에 익숙하여 검소하고 조용한 것을 숭상하는 성해응의 집안 분위기와는 천성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집안 여인들과 영역 싸움을 하며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니, 며느리에게 불평이 많았으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 성대중의 임지를 직접 따라 다니면서 손자며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뒷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다.¹⁾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지전장(碑誌傳狀) 류에서 흔히 보이는 공손한 아내,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여성상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으니, 성해응은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게 서조모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 고모들을 대상으로 한 묘지(墓誌)에서도 잘 사는 외가에서 딸네 식구를 괴롭게 여겼다고 한다든지, 자존심 강한 큰고모가 외갓집에 물건을 얻으러 가기 싫어하는 등의 인간적인 모습, 막내 고모부의 패륜적인 행동과 고모의 비참한 생활 등을 미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다.²⁾ 다른 집안의 여성들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다룬 글을 통해 오히려 생생하고 자살한 일상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 성해응,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권10, <庶祖母[成孝基妻]墓誌>. 이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은 『全集』으로 약칭한다.

2) 『全集』 권10, <長姑母[成季蘭]墓誌>와 <季姑母[李彦五妻]墓誌>

또한 어머니나 아내와 같이 정형적인 인물을 그린 글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언뜻언뜻 실제 삶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물론 미흡한 감이 없진 않으나 자료를 보다 섬세하게 읽는다면 그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규건함으로써 여성생활의 다양한 국면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별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집안별, 계층별, 지역별 여성의 삶, 더 나아가 조선시대 여성의 생생한 삶을 재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성해응의 가계

여성의 삶이나 생활방식을 다룰 때는 신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계층 각각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처지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인식, 가치관, 남녀의 관계 등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해응 집안 여성의 삶 역시 특정 계층의 모습일 것이므로, 여기서는 먼저 성해응 집안의 특성, 즉 신분, 학문 수학 정도,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등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성해응은 창녕(昌寧) 성씨 양반 집안이지만 서얼의 후손이다. 성해응의 7대조 성준구(成俊耆: 1574-1633)는 부제학 성이문(成以文)의 아들로, 광해군 때 이이첨의 모함으로 남해(南海), 이산(理山) 등지에서 16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인조반정 때 풀려났다. 이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고 황해감사, 양서관향사 등을 지낸 후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고령 신씨와 결혼하였으나 아들이 없어서 군수 최덕남(崔德男)의 딸을 맞아 서자인 후룡(後龍)을 낳았다. 이를 후사로 세웠으니 이때부터 이 집안은 서얼집안이 된 듯하다.

6대조 성후룡(成後龍: 1621-1671)은 우의정을 지낸 김상용(金尙容)의

서녀와 결혼하여 완(碗)과 경(璟)을 낳았다. 성후룡의 동서인 장유(張維)의 딸은 효종의 비가 되었으니 성완 형제는 인선왕후(仁宣王后)와 이종사촌지간인 셈이다. 인선왕후는 성완과 성경이 나란히 과거에 급제했을 때 특별히 이들을 불러 격려하였다 한다.

5대조 성경(成璟: 1641-?)은 형인 성완(成碗)과 함께 시를 잘 지어 나란히 이름이 났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면서 김창협·창흡 형제와 함께 시를 읊으며 교유하였다. 시집 2권이 남아있는데 시가 매우 정공(精工)하다고 하며, 김창흡은 그의 시를 두고 만년의 성취가 권필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의 형인 성완(成碗: 1639-1710)은 정두경(鄭斗卿)을 사사하였는데 문장에 뛰어나 김석주(金錫胄)의 추천으로 제 7차 임술사행(1682)에 제술관으로 뽑혀 문명을 떨쳤다. 인현왕후가 출궁되면서 은거하다가 이이명(李頤命)의 천거로 다시 세상에 나와 북부참봉, 군자감 주부 등을 역임하였다.

4대조 성몽규(成夢奎: ?-?)는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10살, 5살의 두 아들을 남겨두고 일찍 졸하였다. 그의 형인 성몽량(成夢良: 1673-?)은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역시 제 9차 기해사행(1719)에 서기로 차출되어 문명을 떨쳤다.

3대조 성효기(成孝基: 1701년-?)는 홀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동생 성학기(成學基: 1706-?)와 함께 나란히 진사시험에 급제하였다. 장수도(長水道)찰방 등을 역임하였으며 문사(文詞)보다는 경사(經史), 예악(禮樂), 천문, 지리, 산수, 역법 등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부친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은 22세에 소과에 급제하고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과 급제 후에 외직을 전전하다 계미사행(1763)에 서기로 뽑혀 문명을 떨치고 돌아왔다. 그 후 전적(典籍), 승문원 교검, 봉상시 판관, 울진현령을 지내다 50세에 교서관 교리를 제수 받고 이후 9년

동안 규장각에 있으면서 각종 전적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말년에 고향 포천으로 돌아와 후학을 가르치다 78세로 임종하였다. 이덕무, 원중거, 박지원 등과 교류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부유한 처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후 40여년의 오랜 관료생활, 9년 동안의 규장각 생활, 통신사행으로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한다.³⁾

성해응(成海應 : 1760-1839)은 진사시험에 합격한 후 문재를 인정받아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정조의 지우를 입어 부친과 함께 춘추좌씨전, 장릉사보, 존주회편 등 각종 편찬사업에 종사하였다. 정조 사망 이후 금정도 찰방, 음성현감 등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각종 학문연구와 저술활동에 주력하였으니,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33권 88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연경재전집』을 남겼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과 교류하였다.

위에서 보듯 성해응의 집안은 비록 서얼가이기는 하였으나 성완에서 성몽량, 성대중, 성해응, 그리고 조카 성우증(成祐曾 : 1783-?)에 이르기까지 5대동안 저명한 문인과 학자를 배출하였다. 명문 사대부가처럼 문벌을 내세울 수는 없었으나 문한가(文翰家)의 전통을 이었으니, 학문적 역량이나 문학적 재능은 평범한 양반 사대부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서얼 명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대중 대부터는 정조의 지우를 입어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풍족한 삶을 영위하였다고 하며, 성후룡이 노론 별열가문인 김상용의 서녀와 혼인함으로써 이후 노론계 인물들과 다양한 교류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김상헌·김상용 형제 및 김창협·창흡 형제, 이이명 등 노론 핵심세력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 한편 조부 성효기 때부터는 이전까지 살던 경기도 안산(安山)을 떠

3) 『全集』 권10, <先妣[成大中妻]行狀>.

나 포천(抱川)으로 이사하였으니 이때부터 이곳이 성해응 집안의 세거지(世居地)가 되었다.

3.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삶

1) 교육과 지적 역량

성해응이 부인의 직분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간(斯干)> 장과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의 구절이니, “『시(詩)』에 이르기를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한다고 나서는 일도 없게 하면서 오직 술과 밥 같은 것만을 의논하게 한다.’고 하였고, 『역(易)』에 이르기를 ‘이루는 바가 없고 집안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하면 곧고 길(吉)하리라.’고 하였으니, 부인의 행실은 오직 음식을 장만하는 데서 볼 수 있네.”⁵⁾라고 하였다. 성해응은 여성과 관련된 글에서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일찍이 다른 집안의 현모(賢母)를 보니 무릇 제사와 손님 접대, 술과 단술, 음식을 갖추는 데 있어서 단아하고 정갈하며 보기 좋은 것이 모두 완성된 법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까닭에 “조상은 제사를 흠향하고 시부모는 화목하며 종족들은 믿고 따라 못 복이 모여든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법도를 몸에 익힌 여성들은 “시골마을의 아낙네들이 비루하여 배운 것이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다.⁶⁾

여기까지만 보면 성해응은 여성의 직분을 가정, 그 중에서도 부엌 내로 한정하고, 여성교육을 음식 장만, 손님 접대, 제사 준비와 같이 철저히 성

4) 이상의 내용은 『全集』 권48, <成氏世譜 上·下> 참조.

5) 『全集』 권16, <外祖姑孀人黃夫人墓誌銘>.

6) 『全集』 권14, <記女誠總叙>.

별화된 영역으로 제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여성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해나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수준일 뿐, 성해응은 다른 글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도 재주와 덕행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詩)』와 『역(易)』에서 하는 말은) 모두 경계하여 말하는 것이다…부인이 하는 일이 어찌 다만 술과 음식 장만일 뿐이겠는가. 옛날의 부인 가운데 아름다운 법도를 후세에 전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이들은 모두 재주와 덕행을 모두 갖춘 자이니, 한(漢) 나라의 조대가(曹大家), 송(宋) 나라 범씨(范氏)의 딸, 우리나라의 신사임당(申師任堂)이 곧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⁷⁾라고 하여,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조대가, 범조우의 딸, 신사임당과 같이 덕행은 물론 재주까지 모두 갖춘 여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성해응은 왜 여성이 재주와 덕행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을까. 그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도(變道)를 기르기 위해 재주와 덕행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여성이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술과 밥, 김치와 젓갈 및 바느질과 길쌈, 투기하지 않는 미덕 같은 것은 다만 상도(常道)를 논한 것일 뿐 변도(變道)를 논한 것은 아니니, 상사(喪事)나 우환(憂患) 등 곤궁하고 위급한 형세를 만나 홀로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됐을 때, 재주와 지혜, 품성과 행실이 뛰어난 여성이 아니면 이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⁸⁾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여성이 재주와 덕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시례지훈(詩禮之訓)’, 즉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평소에 ‘서사

7) 『全集』 권12, <書孺人宋氏事>.

8) 『全集』 권17, <淑人全州柳氏哀辭>.

(書史)'와 '문사(文史)', 즉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문장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해응은 당시에 부인들이 서사(書史) 읽기를 거리키는 경향이 있는데, 서사(書史)는 옛 성현(聖賢)의 말과 행동을 실어놓은 것이라 의지(意志)를 분발케 하므로 미리미리 강독하고 궁구하여 의지를 항상 정(定)하게 하고 식견을 밝게 해두어야 갑자기 생기는 일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⁹⁾ 여기서 말하는 경서와 사기, 문장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남(周南), 소남(召南) 등 이남(二南)을 비롯한 『시경(詩經)』시와 『소학(小學)』, 『열녀전(烈女傳)』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보통 조선시대 여성교육에서는 내훈(內訓) 류나 열녀전 등을 강조하는데,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긴 하지만 '서사', '문사'는 그보다 더 넓고 깊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실제로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어땠을까. 우선 성해응의 집안에는 당시에는 잃어버렸지만 증조모 때부터 내려오던 <여계총서(女誡總叙)> 2권이 있었다고 한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대가(曹大家), 즉 한나라 반소(班昭)의 <여계(女誡)>를 의방(依倣)하여 지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계>의 내용 그대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을 잃어버린 후 이를 아쉬워한 성해응이 다시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아도 반소의 <여계> 자체가 아니라 당시 조선의 상황이나 집안의 형편에 맞게 가감한 내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의 집안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집안의 부인들이 틈나는 대로 이 책을 소리 내어 읽었다고 하며, 또 성해응의 처가 처음 시집왔을 때 시아버지인 성대중이 깨끗한 책 2책을 갖추어 처로 하여금 옮겨

9) 『全集』 권17, <書孺人李氏事>.

10) 『全集』 권17, <書孺人李氏事>.

적게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¹⁾

그런가하면 <숙모 공인 이씨의 묘지>를 보면 할아버지 성효기가 며느리를 불러다가 집안의 법도에 대해 직접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성효기는 며느리에게 집안의 옛날 사적(事蹟)과 윗대의 참한 행실 및 경계가 될 만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고 숙모 또한 그 말을 삼가 받들었다고 한다.¹²⁾

여기까지는 내훈류 및 가문의 법도에 대한 이야기이니, 조선시대 여성 교육에 있어 충분히 짐작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성해응의 고모와 증고모, 조카며느리에 이르면 그들이 받은 교육은 이런 차원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성해응의 고모는 다섯 살이 되면서부터 시(詩)를 외울 줄 알아 마을의 부인들이 작은 할아버지의 진사 급제를 축하하러 왔을 때 증조할머니의 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를 외웠다고 한다. 이때의 시는 한시(漢詩)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여아인 고모에게 한시를 가르쳤으며 아직 어리기는 하나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한문으로 배웠는지 한글 음사(音寫) 방식으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¹³⁾ 후자라 하더라도 시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소학해(小學解)』를 손으로 베껴 쓰면서 외우고 익혔으며, 사물을 볼 때 심상하게 넘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하여 초목의 잎은 모두 푸른데 꽃의 색깔은 다른 이유 같은 것들을 궁금해 하곤 하였다.

11) 『全集』 권14, <記女誠總叙>.

12) 『全集』 권16, <叔母恭人李氏墓誌>.

13) 박무영, 「김호연재의 한시와 규방문학」,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278~280 참조. “다만 여성들의 한시 향유는 표기 문자가 한글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즉 한글로 한자음을 달아서 표기하는 음사 방식으로 한시문을 기록해놓은 자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사람들이 고모를 범순보(范純甫)의 딸에 비견하였는데 범순보의 딸은 정자(程子)가 맹자보다 ‘마음[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한 여인이다.¹⁴⁾ 성대중은 누이와 재주를 겨루면 항상 자신의 재주가 누이에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¹⁵⁾ 고모뿐 아니라 종고모도 재주와 행실이 뛰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종숙부(成大亨)에게 “네가 능히 네 누이의 반만 미칠 수 있다면 또한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¹⁶⁾ 고모가 성대중과 재주를 겨루고 종숙부가 종고모의 재주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모와 종고모 등 성해응 집안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들들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득공의 딸로 성해응의 집안에 시집온 조카며느리는 친정에서 이보다 더한 교육을 받았다. 오빠들이 경전(經傳)과 사서(史書)를 공부할 때 옆에서 따라 공부하였는데 특히 「맹자(孟子)」에 더욱 정통하였으며, 고급 인물들의 현부(賢否)를 분별하는 것부터 천문(天文), 의약(醫藥)에 이르기까지 그 대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시집온 후에 시아버지 성해운(成海運)이 두보의 <북정(北征)>¹⁷⁾ 시를 외워보라고 하자 사양하지 않았다

14) 맹자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데 때가 없어서 그 향해 가는 곳을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순부(淳夫) 범조우(范祖禹)의 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찌 출입이 있는가? 맹자는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니, 정자(程子)가 “이 여인이 맹자가 어떠한 분인가는 몰랐지만 오히려 마음은 알았다.”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송사(宋史)』 권327 <범조우전(范祖禹傳)>

15) 『全集』 권10, <長姑母[成季蘭]墓誌>.

16) 『全集』 권16, <從姑孺人墓誌銘 初本>.

17) 이 시는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한창이던 757년, 두보의 나이 46세 되던 해 가을에 지은 것이다. 당시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가 있던 협서성(陝西省) 봉상현(鳳翔縣)을 출발하여 임시로 가족을 옮겨 놓았던 협서성 부주(鄜州)로 돌아가는 도중의 견문과 소감을 묘사 서술한 장편 기행시이다. 오언고시체의 총 140구, 700자의 대작(大作)으로, 두시 중의 압권이란 평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나라와 군주에 대한 충성, 가족에 대한 애정을 노래한 것으로 비장미가 넘친다.

고 하며,¹⁸⁾ 성해응은 조카며느리가 명리(名理)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총명한 식견과 재치 있는 언변(言辯)을 드러낸다면 가히 사도온(謝道韞)과 같을 것이라고 그 재주를 허여하였다.¹⁹⁾ 사도온은 진(晉) 나라의 여류 문인으로 말재주가 비범해서 남성들과 변론을 하여 이길 만큼 뛰어났다는 여인이다.

유득공은 딸에게 아들과 대등한 교육을 시켰으며, 성해응의 집안은 여성의 학문과 식견을 인정하는 데 비교적 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를 외워보라고 한 시아버지 성해운이나 조카며느리의 재주를 덮어두지 않고 글로 서술한 성해응도 생각보다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내훈이나 열녀전을 통한 여성 이데올로기 교육을 앞세워 강조하지 않고 한시, 「소학」, 「맹자」 등을 읽혔으며, 조카며느리가 외운 시도 시경 시나 도연명의 시 등이 아닌 두보의 비장미 넘치는 대작 <북정>이라는 것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도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유인 송씨의 사적을 쓰다.(書孺人宋氏事)>라는 글에는 성해응이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상이 나온다. 유인 송씨는 송준길(宋浚吉)을 조부로, 김상헌(金尙憲)을 외조부로 하는 법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정교육을 갖추었으며, 일곱 살 때 언문을 깨치고, 아홉 살 때 그림에 능하고 문학과 역사를 섭렵하였으며, 어렸을 때 『시경(詩經)』의 이남(二南) 시와 <소학제사(小學題辭)>, <출사표(出師表)> 등을 배워서 애송하였으며, 시(詩)를 지어 여동생들과 주고받았다고 한다.²⁰⁾ 가난한 가운데서도 딸, 아내,

18) 『全集』 권16, <仲姪婦文化柳氏墓誌>.

19) 『全集』 권16, <仲姪婦文化柳氏墓誌>.

20) 이때의 시는 한시(漢詩)인 것으로 짐작된다.

며느리로서의 도를 다하였으나 특히 자식 교육에 힘써, 매번 아들을 가르칠 때마다 반드시 먼저 스승에게서 구두(句讀) 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였으며, 옛사람들의 사특하고 바르고 어질고 어리석은 점을 가지고 질문하여 그 뜻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아들이 장성하여 글을 지을 수 있게 되자 여러 사람들에게 지어주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임종이 다가오자 아들에게 가난보다 배움이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경계하고 종학(從學)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부탁하였다고 한다. 송씨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들 교육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직접 가르치진 않았으나 아들의 학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은 이에 대해 부인의 미덕이 음식 장만 같은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다소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송씨의 재주와 덕행이 조대거나 범조우의 딸, 신사임당에 비견될 만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성대중보다 재주가 뛰어났다던 성해응의 고모는 결혼도 하기 전에 홍역에 걸려 미처 가정을 거느리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고모는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얼굴로 오라비인 성대중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첫째는, 시집 안 간 처자(處子)이지만 죽을 때 원삼(圓衫)을 입고 상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가 죽거든 곡(哭)은 하지 말라는 것이며, 셋째는, 죽은 후에 제문을 읽고 잘 쓴 묘지문 하나 같이 물어달라는 것이었다. 성해응은 이에 대해 “그 죽음을 바로잡고자 하여 예복에 대해 말한 것이고, 부모님께서 슬퍼하실까 걱정되어 곡을 하지 말라 한 것이며,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이름을 생각하여 잘 쓴 묘지문을 구한 것이다.”²¹⁾라고 하였다. 어떠한 업적도 남긴 바 없고,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도 없으므로 묘지문이야말로 그녀의 존재를

21) 『全集』 권10, <長姑母[成季蘭]墓誌>.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죽음 앞에서 운명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고자 했던 당찬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살아서도 재능 있는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에서 그 어떤 현대 여성보다 대범하고 주관이 뚜렷한 여성상을 19세기 성해응의 묘지문에서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교육을 지극히 제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교육도 지역, 신분, 집안, 개인의 가치관, 능력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은 여성교육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이 집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일은 없었겠지만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문에 바탕한 저력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2) 혼인과 가족관계

일정한 나이가 차고 적당한 교육을 받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해응 집안 여성들은 대개 몇 살쯤에 혼례를 치렀을까. 집안 여성들과 관련된 전, 행장, 묘지명 등의 내용을 탐색해보면 미흡하나마 집안 여성들의 혼인 연령을 추측해볼 수 있다.

족조부(族祖父) 성신기(成信基)의 부인 유인 이씨는 17살에 시집왔으며,²²⁾ 숙부 성대집(成大集)의 첫 번째 부인 함평 이씨는 19살에,²³⁾ 두 번째 부인 공인 이씨는 나이 21살에 시집왔다.²⁴⁾ 어머니는 19살에 시집왔으

22) 『全集』 권16, <族祖母孺人李氏墓誌銘>.

23) 『全集』 권10, <叔母咸平李氏[成大集妻]墓誌>.

24) 『全集』 권16, <叔母恭人李氏墓誌>.

며, 큰고모 성계란(成季蘭)은 병진년에 태어나 홍역으로 갑술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때 나이가 19살이었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오래 와병한 것도 아닌데 그 때까지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막내고모 성계제(成季齊)는 기미년에 태어나 혼인 후 40여년을 살다가 61세에 사망하였다고 하니 20살이 넘어 시집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할머니가 이질을 앓고 있어 혼인을 재촉한 것이라고 한다.²⁶⁾ 종고모는 20살에 시집을 갔으며,²⁷⁾ 성해응의 아내 숙인 이씨는 17살에 시집와서 44년을 함께 살았다고 한다.²⁸⁾ 성해응의 아우 성해주(成海疇)는 아버지 성대중이 ‘겨우’ 7~8세 쯤 되었을 때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여 정미년 겨울에 혼례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이 때 체수의 나이 16살이었으니 집안어른들의 약정으로 인해 혼인이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성해응의 조카며느리는 18살에 시집왔다.³⁰⁾ 이상이 성해응의 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성의 혼인 연령에 관한 모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성해응의 집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장모 의령 남씨는 19살에, 외숙모 파평 윤씨는 20살에 시집왔으며,³¹⁾ 막내 당이모가 시집가려고 할 때 모부인(母夫人)의 상(喪)을 당해 23살에 시집을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³²⁾

이 자료에 나타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대개 20살을 전후하여 결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10

25) 『全集』 권10, <長姑母[成季蘭]墓誌>.

26) 『全集』 권10, <季姑母[李彦五妻]墓誌>.

27) 『全集』 권16, <從姑孺人墓誌銘 初本>.

28) 『全集』 권16, <亡室淑人李氏墓誌銘>.

29) 『全集』 권10, <季嫂[成海疇妻]墓誌>.

30) 『全集』 권16, <仲姪婦文化柳氏墓誌>.

31) 『全集』 권11, <舅母坡平尹氏[李彦弼妻]遺事>.

32) 『全集』 권17, <季堂姨李孺人哀辭>.

대에 일찍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려시대 귀족들은 남자는 20세, 여성은 16세를 전후하여 결혼하는 것이 평균이었는데 점차 그 나이가 낮아져 고려후기에 가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4세 정도에 결혼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색(李穡)과 그의 처 권씨는 불과 14세, 11세의 나이에 결혼하였다고 한다.³³⁾ 조선 전기 세종대 역시 “근자에 사대부가의 혼인이 예제를 따르지 않아 남녀의 나이가 겨우 10살을 지나면 곧 결혼하게 한다.”라고 하여 조혼 금제령을 내렸다고 한다.³⁴⁾ 그런데 18~19세기 무렵 성해응 집안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약 20세 전후로 여성 조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두현은 “조선의 속담에 ‘말만한 처녀는 부잣집 처녀’라 하여 비교적 年多한 처녀는 富家에 혼이었다.”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은 여식의 혼인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³⁵⁾ 성해응의 집안이나 혼인을 맺는 집안 역시 비교적 지체 있는 집안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니어서 여성의 혼인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집안 남성들의 초혼 연령은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성해응의 아버지 성대중이 16살에 19살의 부인을 맞이하였으며³⁶⁾ 숙부(成大集)와 숙모가 19살 동갑에 혼인하였고 성해응이 15살에 17살의 부인을 맞이하여 남성의 초혼 연령이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 십대 중반에 두세 살 위의 여성과 혼인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혼례를 올린 다음에는 어디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을까. 주지하다시피

33) 김용선, 「고려귀족의 결혼, 출산과 수명」, 『한국사연구』 103, 1998, 42~45면 참조.

34) 세종실록 85권 46매, 김두현, 「조선의 조혼과 그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2, 1935, 300면.

35) 김두현, 「조선의 조혼과 그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2, 1935, 318면.

36) 『全集』 권10, <先妣[成大中妻]行狀>.

조선중기까지만 해도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 사는 ‘남귀여가(男歸女家)’제가 성행하였고, 17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 사는 ‘친영제(親迎制)’가 유교 이념에 따라 국가적으로 권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인지 성해응의 증조부인 성몽규(成夢奎)는 혼인 후에 해주(海州) 어거촌(馭車村)으로 가서 처가 옆집에 머물면서 처가살이를 했다고 한다. 물론 부모님이 걱정되어 얼른 돌아왔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가 남귀여가제에서 친영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었던 것 같다. 후에 증조부가 돌아가시자 친정에서 논밭과 집, 노복을 준비하여 증조모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울면서 거절하였다고 하니,³⁷⁾ 유교 이념에 따라 친영제가 정착이 되어가는 시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혼인생활에 있어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남귀여가제’의 잔영이 남아있던 시기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증조모는 혼자 몸으로 길쌈을 하며 두 아들을 양육하여 두 아들을 모두 진사(進士) 시험에 급제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여 조부 성효기(成孝基)가 증조모를 모시고 적촌(赤村)으로 가서 처가살이를 했다고 한다.³⁸⁾ 이번에는 모친까지 모시고 처가살이를 했던 셈이니, 역시 남귀여가의 풍습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귀여가’는 ‘예서제(預婿制)’ 혹은 ‘솔서제(率婿制)’라는 이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 산다는 원칙은 같으나 사회계층과 경제적 생활수준에 따라 양상은 조금 다르다. 하층계급의 솔서제는 사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생겨난 것이지만, 상층계급에서는 사위들이 처가에서 기식 독서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첩서적(贅婿的) 성격이 농후하였다.³⁹⁾ 사위는 처가의 보살핌 아래서 학문과 인격을 닦는 시간

37) 『全集』 권16, <曾祖母孺人全州李氏墓誌>.

38) 『全集』 권16, <曾祖母孺人全州李氏墓誌>.

을 보냈으니, 성해응의 증조부나 조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의 부친 성대중은 처가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으나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해 빈궁하던 시절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성해응의 모친이 친정에서 돈이나 베, 쌀, 꿩고기, 장(醬) 등을 가져다가 살림에 보태곤 하였으며⁴⁰⁾ 큰고모와 막내고모에게 외가에 가서 물건을 얻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각기 상반된 태도를 보이던 모습이 각각의 묘지(墓誌)에 보이기도 한다.⁴¹⁾ 그리고 처가의 경제적 도움 덕분에 성대중이 학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성대중이 정조(正祖)의 지우를 입어 관직에 진출하면서 집안 살림이 넉넉해져 처가살이할 일은 없어졌으나, 생각 외로 당시에 직간접적인 처가살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혼인을 한 이후에 친인척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성대중 이후로 처가살이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처가나 외가, 친정 등 여성과 관련된 친인척과의 관계가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의 어머니는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을 늘 마음에 갖고 있다가 친정어머니가 늙자 맞이하여 봉양하였다고 한다.⁴²⁾ 결혼한 부인이 친정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더구나 성해응의 어머니는 집안의 맏며느리였다. 또 성해응의 아버지 성대중은 처가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상구(喪具)를 모두 지원하고, 묘전(墓田)을 사서 제사를 빠

39) 김일미, 『조선의 혼속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 『이화사학연구』, 1969, 7면.

40) 『全集』 권16, <姨母孺人李氏祭文>.

41) 『全集』 권10, <長姑母[成季蘭]墓誌>와 <季姑母[李彦五妻]墓誌>.

42) 『全集』 권16, <外祖姑孺人黃夫人墓誌銘>.

뜨리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성해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 홀몸이 된 이모를 맞이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7년을 섬겼다고 한다.⁴³⁾

처가의 어른을 모시고, 상사와 제사를 지원하는 것을 단순한 호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의 친족 관념이 그 후 사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처가나 외가의 친인척 사이에도 친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정서적 유대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므로 이런 유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성해응의 숙모와 막내 제수는 주로 친정에 가서 살았는데, 집안어른인 조부 성효기가 이를 용납하였다고 한다. 숙모는 당시에 숙부가 성균관에 유학하고 있어서 따로 살림이 없었고 시댁에선 서모와 손윗동서가 살림을 주관하고 있어서 ‘그 힘을 쓸 데가 없었다.’고 한다. 또 늦게 본 자식이라 친정어머니가 숙모를 떠나있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숙모가 시댁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혹 시어른들을 뵈러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조부의 성품이 매우 엄격하셨으나 만족해하셨다고 한다.⁴⁴⁾ 이는 맏며느리가 아니면 비교적 자유롭게 친정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적장자와 맏며느리, 즉 총부(冢婦)가 집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막내 제수 역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로 친정에 가있었는데 따로 살고 있어도 시어머니 제삿날은 잊지 않고 꼭 찾아왔다며 칭찬하고 있다.⁴⁵⁾ 성해응의 숙모가 그랬던 것처럼 맏며느리가 아니면 시집을 가도 시

43) 『全集』 권16, <姨母孺人李氏祭文>.

44) 『全集』 권10, <叔母咸平李氏墓誌>.

45) 『全集』 권10, <季嫂[成海疇妻]墓誌>.

부모를 모시지 않고 친정에서 사는 것이 대체로 용납되었던 것 같다. 또한 분가(分家)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고 칭찬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든 만아들이 아니면 분가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보통 여성들이 바라던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자료를 보면 처가나 외가와 관계가 생각보다 가깝고 혼인한 이후에도 경제적, 정서적 유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생각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성해옹이 쓴 <절부 변부인전>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딸인 변부인이 3년상을 오롯이 치르고 난 후 시댁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⁴⁷⁾ 성해옹은 이를 칭송하였다. 김일미에 의하면 영조시대 까지도 남녀의 구별을 개의치 않는 제사의 유행이 사회의 일반적 세속이었다고 한다.⁴⁸⁾ 이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3) 죽음과 삼종지도

성해옹의 집안에 시집은 여성들이 죽으면 다른 집안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무덤 곁에 합장하였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해옹의 고모가 19살의 나이에 사망했을 때에도 선산에 무덤을 썼으며, 5살에 천연두로 죽은 성해옹의 딸도 선산에 무덤을 만들어 묻었다. 다만 성해옹의 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례를 지냈다’고 하지 않고 선산 언덕에 ‘버드나무로 짠 자리에 싸서(裹以柳篋)’ ‘묻었다(埋)’고 하였으며, 역시 요절한 큰고모의 무덤 근처에 묻었다고 한

46) 『全集』 권10, <季嫂[成海疇妻]墓誌>.

47) 『全集』 권17, <節婦邊夫人傳>.

48) 김일미, 『조선전기 남녀균분상속제에 대하여』, 『이대사원』 8, 1967, 35면.

다.⁴⁹⁾ 성해응의 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성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는 이 정도이다.

조선 시대는 시대의 특성상 여성의 죽음보다 남성의 죽음이 훨씬 더 중요했던 시기였다. 기록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죽음보다는, 남편의 죽음에 대응하는 여성의 행동 방식이나 그와 관련된 여성의 거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해응은 열녀에 대한 글을 많이 지었다. 남편이 병에 걸려 죽고 뱃속의 아이도 유산하자 물속에 몸을 던져 자결한 여인,⁵⁰⁾ 남편의 우제를 마친 후 자리에 누워 물과 음식을 끊은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여인,⁵¹⁾ 남편이 위독하자 독약을 마시고 자진하여 거짓말 같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한 여인,⁵²⁾ 남편의 삼년상을 마친 후 간수를 마시고 자진한 여인,⁵³⁾ 익사한 남편을 따라 강물에 투신한 여인,⁵⁴⁾ 촌가(村家)의 딸로 남편이 죽자 목을 매어 죽은 여인,⁵⁵⁾ 후손이 없이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 자진하고 며느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양자를 들여서 종사(宗祀)를 물려준 다음 목숨을 끊었다는⁵⁶⁾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다. 물론 남편이 죽은 후에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난한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어린 아이들을 길러낸 이야기⁵⁷⁾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수적(數的)으로 볼 때 남편의 뒤

49) 『全集』 권10, <殤女[成曾萬]墓誌>, “裹以柳篋, 埋于抱川縣南治洞之原, 距先姑上殤之墓不遠.”

50) 『全集』 권17, <金烈婦傳>, 권14, <爲麻田士人請褒烈婦金氏狀>.

51) 『全集』 권17, <書孺人李氏事>.

52) 『全集』 권12, <書烈女宋氏事>.

53) 『全集』 권9, <爲抱川士人舉趙思廉妻柳氏烈行書>.

54) 『全集』 권12, <三烈婦傳 李某妻朴氏>.

55) 『全集』 권17, <朴烈婦傳>.

56) 『全集』 권17, <孺人平山申氏家傳>.

를 이어 초개(草芥)와 같이 목숨을 버린 여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성해옹 집안의 여성들은 어땠을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뒤를 따라 종사(從死)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평생을 수절했지만, 성해옹이 지은 글 속의 여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19세기 여성들처럼 남편을 따라 종사(從死)한 여성의 기록은 그의 집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성해옹의 증조모 전주 이씨는 시집은 지 10여년 만에 병으로 남편을 잃었는데, 증조부 성몽규(成夢奎)는 죽기 전에 증조모에게 두 아들을 잘 가르쳐 가업(家業)을 잇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증조모는 울면서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 때 두 아들의 나이 겨우 10살, 5살이었는데 증조모는 친정의 도움을 뿌리치고 혼자 힘으로 길쌈을 해서 두 아들을 기르고 가르쳤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아들의 학문을 면려하여 조부 성효기(成孝基)와 성학기(成學基) 형제는 모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성효기의 아들 성대중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고, 성해옹과 성해운 형제는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각각 현령과 찰방 벼슬 등을 지냈다. 성해운의 두 아들 성우증(成祐曾)과 성익증(成翼曾) 형제 역시 모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또 증조모 때부터 집안에 <여계총서(女誡總叙)>가 있어서 그것으로 후손을 가르쳤고,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법도 등은 증조모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에 성대중이 ‘우리 집안이 해주(海州)의 평민이 되지 않고 문학(文學)으로 전하게 된 것은 순전히 조모의 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⁵⁸⁾ 이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손을 가르치고 집안을 일으킨 경우로, 이로 인해 증조모는 성대중과 성해옹 등 집안남성들

57) 『全集』 권13, <爲孝婦李女告鄉中人士書>.

58) 『全集』 권16, <曾祖母孺人全州李氏墓誌>.

의 추앙을 받았다.

성해응의 숙모 역시 숙부 성대집에게 시집온 지 10달 만에 혼자가 되었다. 숙모는 죽으려고 목을 매기도 하고 음식을 물리치기도 했으나 집안사람들에게 발견되곤 하였는데, 젊디젊은 나이에 의지할 데도 없고 자식도 없어 죽고 싶은 심정이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숙모의 시숙인 성대중이 제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으니, 자신의 둘째 아들 성해운(成海運)을 숙모에게 양자로 들인 것이다. 그 때 해운의 나이 7살이었는데, 숙모는 슬픔을 머금고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길렀고 장성하여 진사에 급제함으로써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만년에 손자들의 재롱도 보고 또 손자 둘이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도 누리다가 혼자된 지 51년 만인 72세에 세상을 떠났다.⁵⁹⁾ 성해응의 <유인 평산 신씨 가전>을 보면 남편을 잃은 여인이 양자를 들여 후사를 세우고 혼인을 시킨 다음 종사(宗祀)를 물려주고 자결하는데, 숙모의 경우는 양자는 물론 손자를 본 이후에도 종사하지 않고 천수(天壽)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을 보면 성대중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진정으로 숙모가 자진하지 않기를 바란 듯하며, 가부장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베풀어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절에 관한 규범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강화되었고,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남편이 죽자 따라죽은 극단적 수절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성해응의 집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 한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성해응의 외숙모와 이모도 남편 사후에 살아남아 삶을 영위한 것을 볼 수 있다. 외숙모는 외삼촌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자결하려 하였으나 시부모님께서 연로하여 의탁할 데가 없으므로 그만두었다고 하며,⁶⁰⁾ 막내이모는 남편을 잃은 후 아이와 함께 시댁 친척집에 얹혀살다가

59) 『全集』 권16, <叔母恭人李氏墓誌>.

아이마저 죽자 친정으로 갔다가 다시 조카인 성해응의 집에서 75세에 사망할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해응은 남편 사후 여성의 도리에 대해서, 삼종지도(三從之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성해응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개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열부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나라의 풍속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라고 하였다.⁶¹⁾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옛날 경서에서는 논하지 않은 것으로,⁶²⁾ 공자가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논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夫死從子)”고 하였고 『주역(周易)』 전(傳)에서 “부인은 한 지아비를 좇아 일생을 마치는 것이다.(婦人從一而終)”라고 하여 지조를 지키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지, 남편을 따라 죽는 열행(烈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⁶³⁾ 만약에 이것이 의(義)였다면, 공강(共姜)이나 경강(敬姜) 같은 이들이 남편을 따라 죽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으며,⁶⁴⁾ 남편이 죽은 뒤에 가정을 꾸리고 아버이를 봉양하고 아버 없는 아이를 키운다 해도 이치에 어긋날 것이 없고⁶⁵⁾ 하물며 양반이 아닌 시골 아낙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책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⁶⁶⁾ 또한 부인들이 남편을 따라 죽으면서 종사(宗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부모가 의지하고 살 데는 있는지 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의(義)가 아니라고 하였다. 남편이 죽어도 종사를 받들

60) 『全集』 권11, <舅母坡平尹氏[李彦弼妻]遺事>.

61) 『全集』 권17, <朴烈婦傳>.

62) 『全集』 권17, <孺人平山申氏家傳>.

63) 『全集』 권14, <爲麻田士人請褒烈婦金氏狀>.

64) 『全集』 권17, <孺人平山申氏家傳>.

65) 『全集』 권9, <爲抱川士人舉趙思廉妻柳氏烈行書>.

66) 『全集』 권17, <朴烈婦傳>.

고 시부모를 섬김으로써 남편의 뜻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니, 만며느리가 되어 경솔하게 남편을 따라 죽는다면 이는 슬퍼서 죽는 것이지 의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⁶⁷⁾ 종사(從死)를 반대하였다.

성해응은 열녀에도 종류와 등급이 있다고 보았는데, 남편 사후에 남편을 따라 죽는 열부와 살아남아 가정을 지키는 열부가 있으며, 남편을 따라 죽는 열부는 다시 슬퍼서 죽는 열부와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열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성해응은 그 중에서 슬퍼서 죽는 열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즉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는 이는 반드시 원통함이 절박할 것이니 죽어도 혹 절도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⁶⁸⁾ 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성해응 집안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울부짖으며 슬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다. <숙모 공인 이씨의 묘지>에는 “(숙부가 돌아가셔서) 장차 속광(屬纊)을 거행하려고 할 때 할아버지(성효기)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계셨는데, 태공인(숙모)께서 울부짖으며 쓰러지려 하시다가 할아버지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니 그만두셨다. 이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 뚜렷하여 잊을 수가 없다.”⁶⁹⁾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성해응은 다른 글에서 ‘남편을 따라 죽을 것인지 아닌지는 오직 열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나, 그러나 슬픔과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울부짖고 쓰러지면서 그 몸을 해치는 것은 또한 귀(貴)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인(孺人)처럼) 조용히 절도(節度)에 맞게 행한 연후에야 가히 열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⁷⁰⁾이라고 하였다.

67) 『全集』 권17, <金烈婦傳>, <孺人平山申氏家傳>.

68) 『全集』 권9, <爲抱川士人舉趙思廉妻柳氏烈行書>.

69) 『全集』 권16, <叔母恭人李氏墓誌>.

70) 『全集』 권17, <書孺人李氏事>.

그러면 성효기나 성해응은 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울부짖으며 슬퍼하는 것을 기뻐하였을까. 그 이유는 노나라 경강(敬姜)의 행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경강은 공자가 예를 잘 안다고 칭찬한 여인인데, 남편의 상을 당해서는 낮에만 곡을 하였다고 한다. 남편을 곡할 때는 ‘예(禮)’로써 절도에 맞게 하고 아들을 곡할 때는 ‘정(情)’으로써 절도에 맞게 하여야 하니, 과부(寡婦)가 밤에 곡을 하면 정욕(情欲)을 가졌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아들이 죽자 며느리들에게 “내가 듣기로 ‘집안을 좋아하면 여인이 그를 죽이고 집박을 좋아하면 사(士)가 그를 죽인다.’라고 하였다. 지금 나의 아들이 일찍 죽었으니 집안을 좋아하였다는 소문이 날까 걱정이다…너희들은 모쪼록 훼손(毀瘠)하는 기색을 두지 말고, 소리 없이 눈물 흘리지 말고, 가슴을 치지 말고, 근심하는 기색을 하지 말고, 복(服)을 낮춤은 있되 더함은 없도록 하라. 그리하여 예(禮)에 따라 조용히 상을 치르는 것이 나의 아들의 덕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⁷¹⁾ 성효기가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니, 이것이 당시 성해응의 집안을 포함해 양반 집안 열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성해응은 의(義)에 맞게 죽는 열부와 살아서 집안을 일으키는 열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의 상을 치른 후 수의를 짓고 목욕재계한 후 집안사람들을 불러 당부의 말을 전한 뒤 조용히 자리에 누워 물과 음식을 끊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여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편안했기 때문에 의(義)에 맞게 죽은 열부였다.⁷²⁾ 반면에 천첩의 신

71) 경강(敬姜)의 일은 『국어(國語)』, 『노어(魯語)』 하(下)나 『열녀전(列女傳)』, 『모의(母儀)』, <노계경강전(魯季敬姜傳)> 등에 실려 있다.

72) 『全集』 권17, <書孺人李氏事>.

분으로 주인집이 쇠락하자 집을 지키면서 토지, 서적, 가보(家寶) 등을 온전히 보존한 여인 성조이 같은 경우는 살아서 자신과 집안을 지킨 열부이다.⁷³⁾ 어느 쪽이 더욱 바람직한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성조이를 곽광(霍光)이나 제갈량(諸葛亮)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해응은 후자를 더욱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성해응은 왜 열녀를 칭송하는 글을 많이 지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해응은 당시에 ‘풍속이 문란하기 그지없으며 규중 부녀자들의 행실도 왕왕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 있다.’고 개탄하며 혹시라도 풍교(風敎)에 보탬이 될까하여 열부전을 짓는다고 하였다.⁷⁴⁾ 비루한 풍속을 고양하여 세교(世敎)를 일으키고 인류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며,⁷⁵⁾ 열부를 위해 정문(旌門)을 세우고 작위를 봉하여 기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풍속을 돈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⁷⁶⁾

또 하나는 성해응이 이런 글을 자진해서 지었다기보다는 상당부분 지방관의 임무에 충실해서 지었다는 것이다. 많은 글에서 상부에 글을 올려 정려문을 내림으로써 열부의 일족(一族)과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장의 영예를 드높여주기를 청원하고 있다.⁷⁷⁾ 때로는 부탁에 의해 모르는 사람의 글을 지어주기도 하였다.⁷⁸⁾ 성해응은 열(烈)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

73) 『全集』 권12, <書成姬事>.

74) 『全集』 권17, <金烈婦傳>.

75) 『全集』 권9, <爲抱川士人舉趙思廉妻柳氏烈行書>, 권17, <金烈婦傳>, 권14, <爲麻田士人請褒烈婦金氏狀>.

76) 『全集』 권9, <爲抱川士人舉趙思廉妻柳氏烈行書>.

77) 『全集』 권17, <爲抱川士人舉趙思廉妻柳氏烈行書>.

식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수절(守節)을 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였지, 열부의 종사(從死)를 권장하거나 선동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해응은 다른 글에서 ‘처자가 모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혼자 밤길을 뛰쳐나온 것은 잘못’이니 그럴 때는 ‘처녀의 몸으로 마땅히 죽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⁷⁹⁾ 이런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중세인으로서 성해응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한다.

4. 결론

이상 『연경재전집』의 여성 대상 비지전장(碑誌傳狀) 류를 중심으로 성해응의 여성관 및 집안 여성들의 삶을 교육, 혼인, 죽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여성의 구체적인 생활사를 재구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이므로 성해응 집안 여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자료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성해응의 집안은 비록 서얼이긴 하나 5대에 걸쳐 저명한 문인과 학자를 배출한 명문가였다. 관직에 진출해 비교적 풍족한 삶을 영위하였고, 서인 노론의 핵심세력과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였으며, 경기도 포천을 세거지로 한 집안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성해응은 개인과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도(變道)를 기르기 위해 여성도 재주와 덕행을 갖추어야 한다고

78) 『全集』 권17, <朴烈婦傳>.

79) 『全集』 권17, <書清安張處女獄事>.

하였으며, 재주와 덕행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에 더해 평소에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문장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성해응의 고모와 종고모 등 집안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들들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유득공의 딸로 성해응의 집안에 시집온 조카며느리는 오빠들 옆에서 경전과 사서(史書)를 따라 공부하고 천문, 의약에 이르기까지 그 대강을 알고 있었으며 시아버지 앞에서 두보의 <북정(北征)>시를 외웠다고 한다. 성해응의 집안은 여성교육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었으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문에 바탕한 저력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19세기 무렵 성해응 집안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약 20세 전후로 여성 조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귀여가제에서 친영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었던 듯, 증조부 대에 처가살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부 때는 증조모까지 모시고 처가살이를 하였다. 성해응의 부친 성대중은 처가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으나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학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처가나 외가, 친정 등 여성과 관련된 친인척과의 관계가 밀접하였다. 친정어머니나 이모를 모시고 살기도 하며, 성해응의 숙모와 막내 제수는 주로 친정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또한 성대중은 처가의 장례와 제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에 처가나 외가의 친인척 사이에도 친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정서적 유대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해응 집안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평생을 수절했지만 남편을 따라 종사(從死)한 여성은 하나도 없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손을 가르치고 집안을 일으킨 증조모는 집안남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시집온 지 10달 만에 혼자가 된 숙모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시숙의 적극적 조치 덕분에 마음을 붙이고 천수를 누

리는 모습을 보인다. 성해응은 열녀에도 종류와 등급이 있다고 하였는데, 남편 사후 슬퍼서 죽는 열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義)에 맞게 죽는 열부와 살아서 집안을 일으키는 열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다. 성해응은 열(烈)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수절(守節)을 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였지, 열부의 종사(從死)를 권장하거나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궁구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아직 선불리 결론을 낼 수 없어 현상만 재구하는 것에서 그치고자 한다. 이런 연구가 앞으로 보다 더 축적된다면 조선시대의 집안별·계층별·지역별 여성의 삶의 모습이 채워질 것이고, 그를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철학도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런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느 데 우선적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성해응,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송사(宋史)』, <범조우전(范祖禹傳)>.
 『국어(國語)』, 『노어(魯語)』.
 김두현, 「조선의 조혼과 그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2, 1935, 46~86면.
 김용선, 「고려귀족의 결혼, 출산과 수명」, 『한국사연구』 103, 1998, 35~113면.
 김일미, 「재산의 남녀균분상속과 여성의 지위: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6, 1~70면.

- 김일미, 「조선의 혼속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 『이화사학연구』, 1969, 5~13면.
- 박무영, 「김호연재의 한시와 규방문학」,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261~280면.
- 박미혜,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 『고문서연구』 21, 2002, 67~98면.
- 임이랑·홍연주,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제 문제」, 『한국문화연구』12, 2007, 291~305면.
-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고문서연구』 18, 2000, 1~30면.
-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2005, 29~60면.

ABSTRACT

Women's lives of Sung Haeung's family in 18th~19th Century

Hong, Hak-Hee

This paper is one of the tries to reconstruct women's daily lives in Chosun dynasty. In this paper, Sung Haeung's view of womanhood and women's lives of his family are described in three items of education, marriage and death. He said that women should ordinarily read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y. Women of the family were educated like the sons of the family. The average age of the women's marriage was around 20 and it seems that they didn't get married early. The men of his family lived in their in-law's home or they were economically helped from their in-law's home. So they were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intimate with their in-laws or relatives. The women remained faithful to her husband when he died but didn't follow him to the grave.

Key Words women's lives, Sung Haeung, education, marriage, death.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